

[반헌법열전 18번째 소식지]

뉴스레터

2018/02/08 1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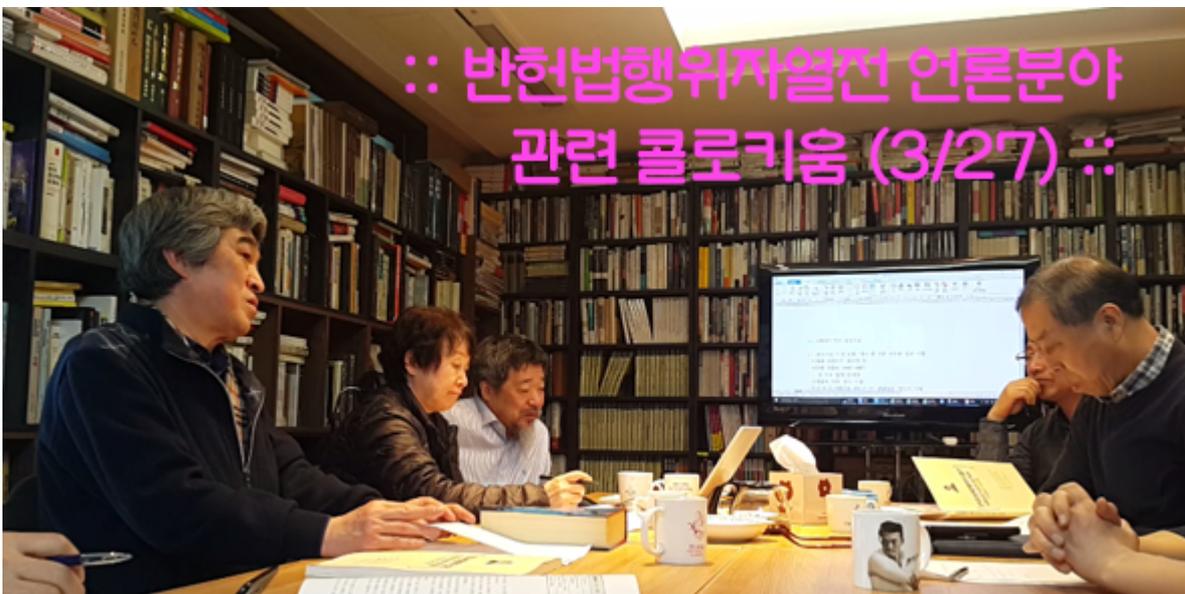
<http://blog.naver.com/badmen0815/221204264869>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뉴스레터



2017년 4월 6일 (목) 제18호 소식지

[3월의 주요활동]



3월 27일 반헌법열전편찬 사무실에서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 김주언 선생님과 함께 ‘언론분야의 반헌법행위자 선정 검토’를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대의제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가치임에도 우리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50년대의 경향신문 폐간사건, 박정희 시대의 ▲부산일보 등 강탈사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사건 등 총 8가지 사건과 관련자 2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외에도 법적·제도적 억압장치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중앙정보부에 의한 통제 등 언론의 자유침해는 일상적이었습니다.

개별 사건 중심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 관련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비롯 주요 언론탄압사례와 관련자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제2회 한경희 통일평화상후기 ::

"나중에 섬나라 가서 다이빙만 하며 살자"

- 이향림 작가님의 후기글입니다.

작년 6월 17일 고인이 된 김관홍 잠수사 앞으로 상이 수여되었다. 그는 세월호 사건 당시 혼자 진도에 찾아온 20년 경력의.. (이미지클릭)

[3월의 읽을거리] (자세한 내용 이미지 클릭)



:: 3월의 카드뉴스 ::

새로운 명단에는 분야가 더 세밀해졌습니다. 민간인 학살/내란 및 헌정유린/고문·조직/간첩조작/부정선거/언론자유침해/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분야와 사건별로 반헌법행위자 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 견지동에서 ::

임영태 (반헌법행위자열전 조사위원)

봄이 왔지만 아직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는 봄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 아파트 단지 화단에 활짝 피었던 매화가 벌써 지려 한다. 한켠에서는 개나리가 ... (중략)



:: 한홍구 교수 프레시안 인터뷰 ① ::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본 것은 1998년부터 오직 3년밖에 없다. 100년 묵은 때가 3년 불려서 얼마나 빠졌을까?"

:: 한홍구 교수 프레시안 인터뷰 ② ::

"굉장히 열심히 싸워온 것이긴 했는데, 이제 이를 제도화하고 세력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정상적인 보수 진보의 대립 구도가 한국 사회에 만들어져야 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02) 735-5812

1. 정기후원(CMS월납) 및 일시불 후원 방법

<http://www.peacemuseum.or.kr/1519>

2. 무통장 입금 후원

후원계좌 006001-04-208023 (국민)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3. 해외 후원 페이팔 계정

badmen0815@gmail.com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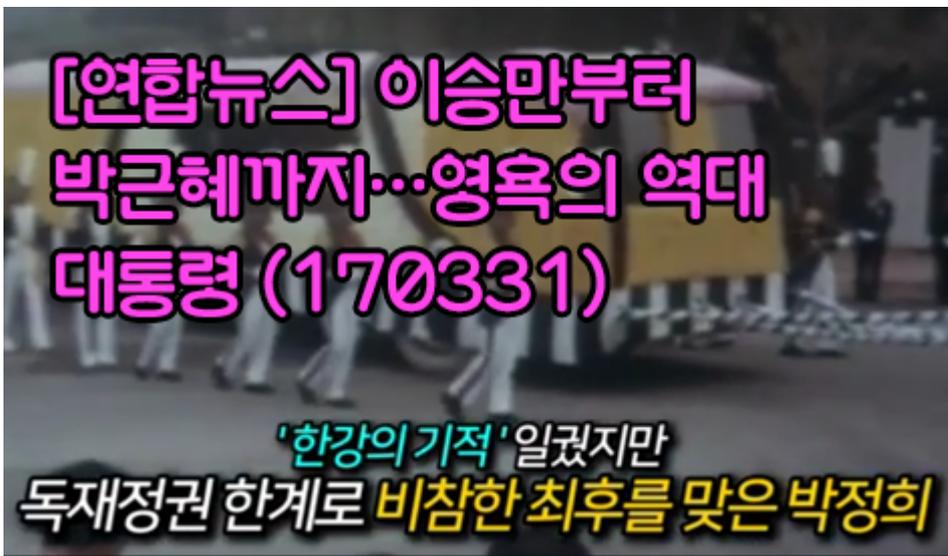
[3월의 시민편찬위원 후원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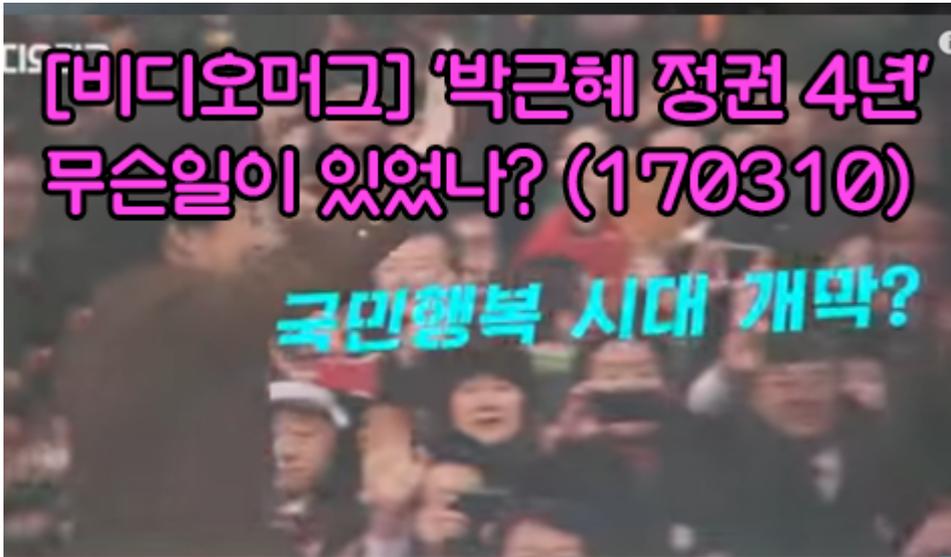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타관련 링크] (한달간의 반헌법열전 관련, 근현대사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사저널] 박근혜의 '슬픈 금요일' (170331)

[뉴스엔미디어][어제TV] '그알' 故이내창 의문사, 또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인가 (170326)

[오마이뉴스] 박정희도 못 고친 박근혜 버릇, 검찰은? (170325)

[노컷뉴스] 전두환-이순자 부부, 나란히 회고록 출간 (170324)

[통일뉴스] 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170314)

[노컷뉴스][박근혜 파면]朴, 해방 이후 5번째 '임기 못채운' 대통령 (170310)

[프레시안][기고] 비로소 유신이 끝났다 (170310)

[이데일리] 주진우 "반헌법주의자 양승태, 잊지 않겠다" (170307)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badmen0815@gmail.com

종로구 삼봉로 95 803호 02-735-5812

수신거부 Unsubscribe